

주월(駐越) 청룡부대 개선 환영사



1965. 10.3 우리 역사상 최초의 원정군遠征軍으로 월남에 파병했던 해병 청룡부대원 1천여 명이 1971. 12.9 주월駐越 한국군 철수 제1진으로 개선凱旋 귀국했다. 金鍾泌 국무총리는 부산항 제3부두에서 장병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개선 환영식에 참석했다. 金 총리는 앞서 그해 11월 월남을 방문, 장병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1971. 12.9, 부산항)

오늘 우리 역사상 최초의 해외 원정군遠征軍인 청룡부대의 영예로운 개선을 맞이하여, 본인과 온 국민은 넘쳐흐르는 자랑과 기쁨 속에 조국의 이름으로 청룡부대 장병 여러분에게 환영의 꽃다발을 드리는 바입니다.

남지나해南支那海의 파도를 헤치고 조국으로 개선한 청룡장병 여러분의 검게 탄 씩씩한 모습을 대하는 본인의 마음은 무척 반갑습니다.

지난 11월1일 본인은 개선 준비로 봄비는 호이안 진중陣中으로 여러분을 찾아 여러분의 노고를 위문하고, 유종有終의 미미를 거두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 하라고 당부했었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땅 위에서 여러분의 변함없는 늠름한 모습을 대하는 본인의 감회는 남달리 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맞는 이 자리에서 본인은 자연히 지난 6년 동안 여러분이 월남의 투이호와 출라이, 그리고 호이안 등지에서 이룩해온 빛나는 업적들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1965년 10월, 혼미昏迷를 거듭하고 있던 월남전선에 자유·민주·정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참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월남 국민들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을 막고 자유와 평화를 회복하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정글을 누비며 몇 번이고 사선死線을 넘으면서 월남 땅에서 용전분투勇戰奮鬪한 6년간의 업적 속에는 일일이 본인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치 많은 전공戰功과 노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룡용사 여러분은 그동안 170회에 달하는 대단위 부대 작전 및 허다한 소부대 작전을 통해서 1만여 명에 달하는 적敵을 사살하고 720명의 베트남과 월맹군을 생포했으며, 800여 명의 귀순자를 얻어 공산주의자들의 소굴로 통하던 호이안과 출라이 지역을 평정했고 4천여 정挺의 개인화기와 290여 문의 공용화기를 노획함으로써, 주둔지역 내의 적을 재기불능再起不能의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특히 청룡부대 장병 여러분은 짜빈동의 대첩大捷, 베리아반도 상륙전, 고노이 섬 기습작전 등을 통해서 일찍이 세계 전쟁사에서 찾아볼 수 없던 승전을 기록함으로써, 한

미·월越 3국의 국가원수들로부터 7회에 이르는 부대표창을 받았을 뿐 아니라, 191명의 장병들이 일시에 일제급씩 특진하는 월남전 사상 전례 없는 명예도 기록했습니다.

언제나 전쟁터에서는 무적無敵의 용맹을 자랑한 장병 여러분은 또 월남전의 성격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대민 지원사업에도 남다른 성과를 올린 것은 특기할 사실의 하나로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룡부대의 의료혜택을 받은 약 90만 명의 현지주민을 비롯하여 40여만 명에 달하는 호이안과 출라이 지역의 학생, 공무원, 민병대, 지방군地方軍들이 청룡부대 여러분의 철수를 극력 만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동안 여러분이 월남의 평화와 월남국민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봉사해 왔던가를 알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청룡장병 여러분은 월남국민들 마음속에 자신을 심어주었으며, 대민 지원을 통해서도 평화를 갈구하는 현지 주민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청룡장병 여러분은 뛰어난 용맹과 헌신적인 봉사로 월남전을 유리하게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폐허 속에서 신음하던 월남 국민들이 재건과 부흥을 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도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러한 청룡부대의 공적에 우리 온 국민은 물론, 자유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고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오늘 돌아온 평화의 사도, 청룡용사들을 중심으로 부터 열렬히 환영하는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가중해오는 북괴의 침략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괴는 이른바 닉슨 독트린의 적용에 따라 한반도에서 미군이 감축되고, 한편으로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리고 있는 이때를 오히려 그들의 호기好機로 보고 전쟁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괴는 항일부정작전向日不定作戰이니 20일전쟁이란 구호를 공공연하게 부르짖으면서 남침 기도를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1년 전까지만 해도 70개 정도였던 휴전선 일대의 전초기지를 최근에는

2백여 개로 증설한 것을 비롯하여 북한 전역을 요새화한 지도 이미 오랜 일인 것입니다.

김일성은 작년 11월에 연 저들 노동당의 5차 전당대회에서 “전쟁준비는 끝났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그는 금년 3월까지 침략전쟁 준비를 절정에 끌어올려 놓았고 요즘에 와서는 속전속결速戰速決 전략에 입각한 전쟁도발을 기도하는 일련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밖으로부터는 국제적인 이른바 해빙무드의 압력을 받고, 대내적으로는 북괴의 기습전쟁 도발에 만반의 대비를 서둘러 갖추어야 하는 어려운 여건 하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괴의 어떠한 도전도 능히 봉쇄할 수 있는 국방태세를 무엇보다도 앞서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될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지난 6년간 월남전선에서 피땀으로 얻은 소중한 전투경험과 백절불굴百折不屈의 투지를 자랑하는 여러분 청룡부대 용사들이 이제 다시 고국 땅에서 국토를 방위하는 일선에 서게 되었음을 우리 국민은 참으로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총화 속에 자주적인 국방력을 튼튼히 다져 정규·비정규전이건 간에 적의 침략에 대비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이때에, 주월 국군의 첫 개선후대로서 고국에 돌아온 청룡부대 용사들이 실전實戰을 통해 얻은 체험을 유사시에 고국의 자유수호 전선에서 다시 한 번 크게 빛낼 것을 본인은 믿어 의심치 않으며, 또 자주국방태세 확립에 헌신 봉사해주기를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본인은 오늘 이 영광의 날에 여러분과 함께 개선하지 못하고 자유를 지키느라고 이역만리異域萬里 월남전선에서 산화散華한 명령들의 명복을 경건한 마음으로 빌며, 개선용사 여러분의 건투와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더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金堧

♡ 후원회 계좌 구좌번호 ♡

KEB하나은행 262-910016-32504 (재)운정재단
NH농협은행 301-0185-9589-91 (재)운정재단